

말뿐인 ‘친환경도시’ 광주…녹색건축 전환 담보

ZEB 인증 74건·그린리모델링 점유율 2% 불과…전국 최하위권
골목형 밀집 주거 형태 등 고려 생활밀착형 모델로 영역 넓혀야

광주시의 녹색건축 전환이 담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G-SEED), 그린리모델링 등 정부 핵심정책이 2050 탄소중립과 2030 감축목표(NDC)에 따라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녹색건축 확산은 구호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19일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내는 이슈포커스(세정부 출범에 따른 광주시 녹색건축물 조성방안)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광주는 ZEB 인증 건수가 74건으로 전국 2469건의 3.0%에 불과하다.

광주는 2022년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광주 맞춤형 보급 확대’와 ‘기존 건축물 녹색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공주도형 사업에만 머물러 민간 확산의 동력이 부족한 상태로 확인됐다.
광주는 전국 ZEB 본인증 지역별 평균(145건)에 못미치는 74건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주거용 인증 실적은 전무하며 대부분이 공공·업무용 위주다. 전체 건축물 대비 ZEB 보급률은 0.13%로 세종(0.36%), 인천(0.19%)보다 낮다.

녹색건축 인증(G-SEED)의 경우 전국적으로 민간 건축물 중심의 인증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광주는 여전히 공공청사가 대부분이다.
민간 부문은 자발적 참여를 이끌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고, 지방조례나 재정지원 방식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20~2024년 기준 전국 평균 대비 광주의 점유율은 2%대로, 광역시 중 최하위권이다.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사업 건수는 감소세에 있고, 어린이집·보건소 중심의 제한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형 녹색리모델링이 지역 주거지나 생활 SOC로 확장되지 못한 원인은 예산 불안정, 인력 부족, 행정 절차 복잡성 등이 동시에 작용한 데 있다.

이런 특성상 건물 단위의 단열개선 수준을 넘어 마을·커뮤니티 단위의 통합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민 체감형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연계형 그린리모델링 등 사회복지 접근이 병행돼야 실질적 탄소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의 ‘지자체 녹색건축 평가(2022~2024년)’에서도 광주는 세 해 연속 ‘확산 보통·에너지성능 우수·정책이행 우수’ 등급을 나타냈다.
제도와 예산은 우수하지만 확산력과 집행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인적역량 점수가 연속 하락했으며, 그린리모델링 도입률도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결과적으로 ‘정책 우수 도시’라는 외형 아래 ‘현장 실행력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의 지리적 제약도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도심·골목형 주거의 고밀저층 주거지와 노후 건축물 밀집, 내륙형 기후 요인으로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되고, 기후열섬·난방비 부담이 커진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정책과의 연계 부재다. 국가 제3차 녹색건축 기본계획(2025~2029)은 기후적응·디지털 기반의 통합전략을 핵심으로 삼고 있지만, 광주의 현행 계획은 개별 기술 중심 접근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IM(건물정보모델링) 등 디지털 관리체계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관리도 정책화되지 않았다. ‘AI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비전과 실제 녹색건축 시스템이 따로 노는 셈이다.
광주형 녹색건축 정책의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 인센티브 확충’, ‘AI-RE100 연계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핵심 해법으로 꼽는다.
공공건축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영구임대·소형주택 등 생활밀착형 모델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려인 마을서 ‘세계 야시장’ 만나다
‘2025광산 세계 야시장’이 18일 고려인 마을특화거리 일원에서 열렸다. 중앙아시아 7개국을 비롯한 베트남, 중국 등 19개국 이주민 공동체가 참여해 지구촌의 식탁을 차린 가운데 시민들이 각국의 음식을 맛보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전남도, 역대 최대 19만 톤 공공비축미 매입…전국의 30.5%

지난해 15만1000t보다 26.4% ↑
전남도가 오는 12월까지 2025년산 공공 비축미 19만t을 매입한다.
지난해 매입량 15만1000t보다 26.4% 증가한 역대 최대로, 전국 매입량(62만5000t)의 30.5%로 전국 최다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 올해 비축미 매입 계획량은 일반벼 10만 1000t, 친환경 벼 2만 9000t, 산물벼 3만 1000t, 가루쌀 2만 9000t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건조하지 않은 벼)의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가 편의를 위해 미국종합처리장(RPC)과 건조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 쌀 매입은 농가로부터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이뤄진다.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은 정부 양곡 품질 고교화

를 위해, 사·군별 2개 이내 품종으로 제한되며, 지정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할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도는 품종 확인을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매입 대상 농가의 5% 이내의 표본 시료를 채취하고, 매입이 끝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민간 검정기관에서 DNA 검사를 통한 품종 검정을 시행한다.
올해 공공 비축미 매입은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친환경 벼로 신규 전환한 물량의 경우 농가 희망 시 전량 매입한다. 친환경 벼 매입 품종은 일반벼와 동일하며 추가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벼는 회수하거나 일반벼로 전환하며, 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고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kg 기준)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한다. 전국 단일 가격으로 매입하며, 매입 직후 중간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되며, 최종 정산금은 올해 연말 지급된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벼 깨씨무늬병이 정부로부터 농업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가, 저품질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조사 후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 여름 기록적인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어렵게 맺은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매입 품종 확인과 수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비축미 매입 작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매입 현장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차부품업체 역량강화 기업 35곳 확정

연구개발 기획·인증 등 지원

광주시가 ‘2025년 자동차부품업체 역량강화사업’ 대상 기업 35곳을 확정했다.
미래차 체계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묶은 9개 분야 패키지로 연말까지 사업구조 재편과 기술·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시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 공모를 진행해 43개사가 신청했으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35개사를 뽑았다.
선정 기업은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 확산에 맞춰 연구개발 기획과 인증, 공정 혁신 등 실질 과제를 12월까지 집중 지원받는다.
지원 내용은 미래차 중심의 사업 재편을 축으로, 공급망 이애스지(ESG) 대응 체계 마련, 연구개발

(R&D) 사전 기획 강화, 국내의 기준에 맞춘 품질 인증 확보, 생산라인 병목 해소를 위한 공정 혁신과 공정기술 내재화 지원 등이다. 양산 전 단계의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회 참가와 기업·제품 홍보 역량 제고까지 전 주기를 뒷받침한다.
‘기획-개발-양산-시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 병행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지역 부품업체 체질개선을 추진했다.
지난 2년 동안 32건(2023년 21건, 2024년 11건) 과제를 통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에 기반한 사업 재편, 해외 수요처 맞춤형 사업화 모델 구축, 공정 구조의 단계적 개선 등에서 효과를 거뒀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지역 부품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고, 완성차-부품-서비스로 이어지는 지역 산업 생태계를 다질 계획이다.
이동현 시 미래차산업과장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으로 패러다임 전환은 지역 부품업체에 새로운 기회”라며 “독자 기술을 고부가 제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부터 인증, 공정, 판로까지 촘촘히 지원해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모

2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전남도립미술관이 2025년 하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시작한다.
수집 방향은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작품을 비롯, 전남미술사의 흐름과 맥락을 보여줄 작품, 전남의 역사·지리·자연·문학작 특징 등을 주제로 한 작품, 동시대 미술의 주요 경향을 이끄는 대표 작품,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한 작가의 작품 등 5가지다.
학술적·예술사적 가치, 보존 상태, 시장성 및 예산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입 여부와 가격이 확정된다. 전남도립미술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원칙으로 최종 선정 결과를 11월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의 일정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우편 소인 기준 22일까지 유효하고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과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저탄소 실현…광주시, 전기이륜차 충전시설 확충

올해 말까지 50기 설치

광주시가 저탄소 도시 구현을 위해 도심 배달용 전기 이륜차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기를 설치한다.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을 적용한 표준형 설비로 누구나 30초 안에 배터리를 바꿔 쓸 수 있어 이용 장벽을 낮추고,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의 자회사 ‘쿠루’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해 사업비 1억원으로 17기를 우선 구축했고, 이달 16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보조사업자는 환경부 공모에도 참여해 20기를 추가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13기를 더 설치해 총 50기 규모의 교환 거점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들어서는 교환형 충전시설은 특정 제조사 전용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KS 표준을 따른다.
표준 규격을 채택한 전기이륜차라면 제조사와 관계없이 호환되며, 사용자는 방전된 배터리를 장비에 넣고 충전 완료 배터리로 바꿔 끼우면 된다. 기계식 자판기처럼 단순한 절차로 운영돼 교환 소요 시간은 30초 이내다.

광주시는 교환형 인프라 확충이 주택가의 공회전 소음과 배출가스를 동시에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충전 대기 시간을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3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종과 성능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계층·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배달용 차량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나병춘 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산업표준형 교환 설비 도입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친환경 차량 보급이 생활 속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전기이륜차 130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종과 성능에 따라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소상공인·장애인·차상위계층·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해당 금액의 20%를, 배달용 차량에는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배달용 추가 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블랙야크 알파인클럽**

핸드폰 GPS 인증
정상 100m 반경에 접근하여 사전 알림 (발도정 확인)(인증하기) 화면에 자동으로 GPS 인증하기 버튼 누르고 사진 등록

핸드폰 지도 기능
내가 다녀온 산 내가 가야할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평균100, 백두대간, 정상100+, 성악산100, 북동정맥, 한복정맥)

대회 인증 기능
내가 자주 찾는 산 캘린더 마다 인증 (1일 2회 이상 인증 가능)

BAC 코인 적립
인증 시 산 높이만큼 BAC 코인으로 지급

**BLACK YAK**

2025년 100대 산



LUKLA
루클라 다운

**블랙야크 광주상무점은 2013년부터 명산100 도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상무점 : 062-384-1811 **광주아울렛점 : 062-372-0800**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블랙야크 광주상무점)